

##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안경원 창업예정도

이옥진 · 정세훈\* · 신진아\*\*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신흥대학 안경광학과, \*\*여주대학 안경광학과  
투고일(2008년 10월 31일), 수정일(2008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2008년 12월 9일)

**목적:**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안경원 창업의식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어 창업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방법:** 경기 지역 3개 대학의 안경광학과 재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SPSS 통계 분석을 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안경원 창업예정도는 80.1%로 매우 높았다. 창업 시기는 안경원에 6년 이상 근무한 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 $p<.001$ )과 안경사친인척 유무( $p<.05$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형태는 단독창업의 형태가 37.0%로 높았으며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 창업규모는 중형규모(30평형)가 43.5%로 가장 높았고 창업지역은 수도권, 경기지역이 54.4%, 창업장소는 역세권이 40.8%로 높게 나타났다. 안경원 비창업 사유로는 안과, 안경업체의 취업 때문이 35.7%로 높게 나타났고 비창업자의 진로는 안경원 근무가 35.7%로 나타났다. **결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창업예정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들의 창업 준비를 위한 창업교육이 요구된다.

**주제어:** 안경광학과 학생, 안경원 창업예정도, 창업시기, 창업형태

### 서 론

2006년도에 실시된 초·중·고 학생신체검사에서 42.19%의 학생들의 시력에 문제(단안시력 0.6이하)가 있으며 해마다 시력저하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sup>1</sup> 일례와 같이 국민의 시력저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안경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불황에 따른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90년대 초반에 20개교에 개설되었던 안경광학과가 2008년 현재 2배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재학생의 수가 증가하였다<sup>2</sup>.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은 졸업 후 안경원, 안과, 안경관련 산업체, 콘택트렌즈관련 산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안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안경원을 창업하여 경영자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학생들이 졸업 후 원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과 교과목의 뒷받침이 요구되며 졸업 후 안경원 창업에 관해서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원 창업은 사업가적인 능력과 자본, 인력, 설비, 원자재 등의 경영자원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재학 중에 창업의 개념과 경영자 정신, 그리고 창업경영기술을 익힐 수 있는 창업교육이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sup>3</sup>. 또한 2년제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안경사 직업의식 배양, 안경원 조직내 리더십, 경영과 마케팅 관련 교과목의 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의 목표에 맞는 직업의식, 경영 등의 관련교과목 개설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4</sup>.

그러나 안경원 창업과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창업, 창업교육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극히 일부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창업마인드와 요구에 관한 자료도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안경원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실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안경원 창업의 시기, 형태, 규모 등의 창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안경원 창업예정도와 학생들의 요구도를 알아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신저자 연락처: 이옥진, 440-7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지동 937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TEL: 031-249-6512, FAX: 031-249-6510, E-mail: leeo@dongnam.ac.kr

\*본 연구는 2008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10월 현재 경기도 소재 3개 보건대학에 재학 중인 3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28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총 287부의 설문지는 응답빈도 및 통계검정을 위해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각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된 연구가 없는 관계로 연구자들이 작성하였으며 안경원 창업예정에 관한 8문항과 성별, 학년, 연령, 시력교정여부, 안경사친인척유무 등의 인적사항 5문항, 총 13문항으로 작성되었다.

## 연구결과 및 고찰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총 287명의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55.7%, 여학생은 44.3%였다. 연령은 20세 미만이 4.5%, 20대가 83.3%, 30대가 8.7%, 40대 이상이 3.5%로 20대의 빈도가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7.6%, 2학년이 30.7%, 3학년이 31.7%였다. 시력교정여부에 관해서는 교정한 학생의 빈도가 73.9%로 높았다(안경교정이 53.0%, 콘택트렌즈교정이

16.7%, 굴절교정각막수술교정이 4.2%). 안경사친인척유무에 관해서는 ‘안경원을 경영하는 안경사친인척이 있다’가 21.7%,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친인척이 있다’가 5.2%, ‘타업종에 종사하는 안경사친인척이 있다’가 1.0%로 안경사 일가친척이 있는 경우의 빈도는 27.9%였으며 ‘안경사는 아니지만 안경원에 종사하는 친인척이 있다’가 2.1%, ‘안경사친인척이 없다’가 70.0%로 나타났다(Table 1).

### 2. 안경원 창업 예정여부

경기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안경원 창업 예정에 대해 80.1%(230명)가 ‘창업하겠다’라고 답했으며, 19.9%(57명)가 ‘창업하지 않겠다’라고 답해 창업예정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창업을 원하는 학생의 성별 빈도는 남학생이 58.3%(134명)로 41.7%(96명)인 여학생 보다는 높았으나(Fig. 2) 최근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 중 남자의 비율이 남자 75.4%, 여자 24.6%라는 연구결과와<sup>5</sup> 경기도 주거지역의 소규모 안경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영자의 73.9%가 남자 26.1%가 여자라는 결과<sup>3</sup>보다는 여학생의 창업 예정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창업자와 창업예정자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1995년 여성안경사의 비율이 19.4%였던 것이 2005년 32.3%로 증가한 것처럼<sup>6</sup> 안경업계에서의 여성 안경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안경광학과에 진학한 여학생들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연령, 학년, 시력교정여부, 안경사친인척유무에 따른 교차분석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7)

characters	division	frequency(%)	
sex	male	160(55.7%)	
	female	127(44.3%)	
age	~19	13(4.5%)	
	20~29	239(83.3%)	
	30~39	25(8.7%)	
	40~	10(3.5%)	
grade	the first grade	108(37.6%)	
	the second grade	88(30.7%)	
	the third grade	91(31.7%)	
correction of visual acuity	yes	glasses	152(53.0%)
		contact lens	48(16.7%)
		refractive corneal surgery	12(4.2%)
	no	75(26.1%)	
optician family present	yes	80(27.9%)	
	no	207(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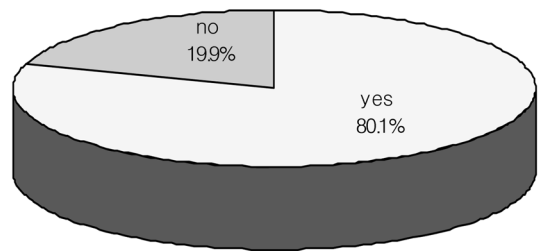


Fig. 1. The optical shop startup business pla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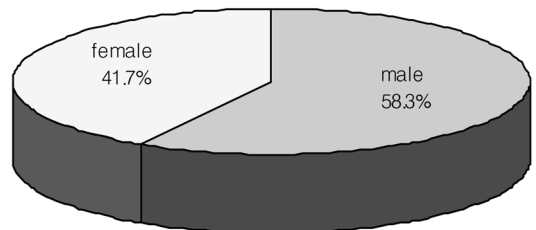


Fig. 2. The distribution of optical shop startup business pla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according to sex.

### 3. 안경원 창업 예정시기

경기지역 안경광학과 학생들 중 졸업 후 안경원을 창업 하겠다고 답한 창업예정자 230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안경원 창업 예정시기를 알아 본 결과, ‘안경원 6년 이상 근무 후 창업’이 37.0%(85명), ‘안경원 4~5년 근무 후 창업’이 33.5%(77명), ‘안경원 2~3년 근무 후 창업’이 23.9%(55명), ‘졸업직후 창업’이 5.6%(13명) 순으로 안경원 6년 이상 근무 후에 창업하겠다는 답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는 ‘안경원 4~5년 근무 후 창업’과 ‘안경원 6년 이상 근무 후 창업’의 빈도가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졸업직후 창업’과 ‘안경원 2~3년 근무 후 창업’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p < .001$ ). 또한 안경사친인척유무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안경사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직후 창업’과 ‘안경원 2~3년 근무 후 창업’의 빈도가 높은 반면 안경사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안경원 4~5년 근무 후 창업’과 ‘안경원 6년 이상 근무 후 창업’의 빈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able 3,  $p < .05$ ). 성별, 학년, 시력 교정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대다수의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안경사로서 근무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창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20대의 결과는 근무경력 4~5년차에서 안경원 창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등(2008)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서 20대 학생들은 졸업 후 4~5년의 경력을 쌓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창업의 시기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와 40대에서 ‘졸업직후 창업’과 ‘안경원 2~3년 근무 후 창업’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20대에 비해 연령이 많음으로 인해 창업준비 기간을 길게 가질 수가 없고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경광학과 진학 시 졸업 후 창업을 목표로 진학하였기에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진학이전의 사회활동으로 재정적인 측면이 갖추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안경사 친인척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나타났는데, 안경사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졸업 후 4년 이후에 창업을 위해 일반적인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결과와 유사 하였으나 안경사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안경사 친인척으로부터 제공되는 창업경험 또는 창업정보에 힘입어 창업시기를 앞당겨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안경원 창업형태

창업예정자 23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안경원 창업형태를 알아 본 결과, ‘단독창업’이 37.0%(85명), ‘체인점-프랜차이즈형 창업’이 32.6%(75명), ‘동업형 창업’이 26.5%(61명), ‘해외창업’이 3.9%(9명) 순으로 단독창업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체인점-프랜차이즈형 창업’과 ‘동업형 창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의 경우는 ‘체인점-프랜차이즈형 창업’이, 3학년의 경우는 ‘단독창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해외창업’의 경우는 1학년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able 4,  $p < .01$ ). 성별, 연령, 시력 교정여부, 안경사친인척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The startup timing according to ages (n=230)

division	age				total
	~19	20~29	30~39	40~	
directly after graduation	7.7% (1)	15.4% (2)	38.5% (5)	38.5% (5)	100% (13)
2~3yrs of employe	3.6% (2)	67.3% (37)	21.8% (12)	7.3% (4)	100% (55)
4~5yrs of employe	2.6% (2)	94.8% (73)	2.6% (2)	0.0% (0)	100% (77)
over 6yrs of employe	3.5% (3)	91.8% (78)	3.5% (3)	1.2% (1)	100% (85)
total	3.5% (8)	82.6% (190)	9.6% (22)	4.3% (10)	100% (230)

Table 3. The startup timing according to optician family present (n=230)

division	optician family present			optician family absent		total
	manager of optical shop	employe of optical shop	employe of other job series	employe of optical shop	optician family absent	
directly after graduation	46.1%(6)	7.7%(1)	7.7%(1)	0.0%(0)	38.5%(5)	100%(13)
2~3yrs of employe	32.7%(18)	9.1%(5)	1.8%(1)	0.0%(0)	56.4%(31)	100%(55)
4~5yrs of employe	13.0%(10)	2.6%(2)	0.0%(0)	2.6%(2)	81.8%(63)	100%(77)
over 6yrs of employe	22.4%(19)	4.7%(4)	1.2%(1)	2.4%(2)	69.4%(59)	100%(85)
total	23.0%(53)	5.2%(12)	1.3%(3)	1.7%(4)	68.7%(158)	100%(230)

Table 4. The startup type according to grades (n=230)

division	grade			total
	the first grade	the second grade	the third grade	
single startup type	29.4% (25)	27.1% (23)	43.5% (37)	100% (85)
business in partnership type	44.3% (27)	29.5% (18)	26.2% (16)	100% (61)
franchise type	45.3% (34)	37.3% (28)	17.3% (13)	100% (75)
overseas startup type	77.8% (7)	11.1% (1)	11.1% (1)	100% (9)
total	40.4% (93)	30.4% (70)	29.1% (67)	100% (230)

이상의 결과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단독창업 외에도 체인점-프랜차이즈형 창업, 동업형 창업, 해외창업 등 다양한 창업형태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단독창업보다는 체인점-프랜차이즈형이나 동업형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1학년의 경우에는 해외창업까지도 고려하는 등 폭 넓은 창업의 형태를 고려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 5. 안경원 창업규모

창업예정자 23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안경원 창업규모를 알아 본 결과, '30평형대 중형규모'가 43.5%(100명), '20평형대 중소형규모'가 36.5%(84명), '40평 이상 대형규모'가 14.8%(34명), 10평형대 소형규모'가 5.2%(12명) 순으로 나타나 30평형대 중형규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성별, 연령, 학년, 시력교정여부, 안경사친인척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김과 김(2004)의 연구에서 무작위 추출한 안경원의 규모가 11~19평이 38.5%, 51평 이상이 30.8%, 21~29평이 15.4%, 31~39평이 10.8%, 9평 이하가 3.1%, 41~49평이 1.4% 순으로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30평형대 중형규모와 40평 이상의 대형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의 안경원 대형화와 체인점-프랜차이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실제 창업자가 아닌 재학생들이므로 현실보다는 창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사항이 크게 반영된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 6. 안경원 창업지역

창업예정자 23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안경원 창업지역을 알아 본 결과, '수도권, 경기지역'이 54.4%(125명), '서울지역'이 40.5%(93명), '해외'가 3.0%(7명), '충청지역'

이 1.3%(3명), '강원지역', '경상지역'이 각각 0.4%(1명)씩 이었고 '전라지역'과 '제주지역'은 0%로 나타나 수도권,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의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년, 시력교정여부, 안경사친인척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안경원 개설업소의 지역별 분포가 서울지역이 29.00%, 경기지역이 12.57%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개설자의 지역분포에서도 서울 27.12%, 경기지역 13.33%로 높게 나타난 것과<sup>7</sup>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경기지역의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타 지역과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전의 개설업소 지역별 분포와 비교하여 서울지역 보다는 수도권, 경기지역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 점에서는 연구대상인 학생들이 경기도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도권, 경기지역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 안경원 창업장소

창업예정자 23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안경원 창업장소를 알아 본 결과, '역세권'이 40.8%(93명), '주택가'가 28.9%(66명), '대학가'가 21.1%(48명), '백화점, 대형마트 내'가 9.2%(21명) 순으로 나타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년, 시력교정여부, 안경사 친인척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8. 안경원 비창업 예정자의 사유

졸업 후 안경원을 창업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창업예정자 57명 중 중복응답을 한 학생을 제외한 56명을 대상으로 안경원 비창업의 사유를 알아 본 결과, '안과, 안경관련업체 등의 취업을 원하기 때문'이 35.7%(20명), '창업비용의 부담'이 30.4%(17명), '타 업종취업'이 16.1%(9명), '경영자로서의 경영부담'이 10.7%(6명),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이 7.1%(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년, 시력교정여부, 안경사 친인척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9. 안경원 비창업 예정자의 진로

비창업예정자 57명 중 중복응답을 한 학생을 제외한 56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를 알아 본 결과, '안경원 취업'이 35.7%(20명), '안과 취업'이 25.0%(14명), '타 직종에 취업'이 21.4%(12명), '안경관련업체, 광학기기업체 취업'이 12.5%(7명), '컨택트렌즈 업체 취업'이 5.4%(3명) 순으로 나타나 안경원과 안과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타 직종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21.4%나 되었다. 성별, 연령, 학년, 시력교정여부, 안경사 친인척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김(2008)의 연구에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1, 2, 3학년 모두에서 안경원 취업이 60~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안과취업이 15~17%, 안경기기 및 제조회사 취업이 7~13%, 타 직종 취업이 5~8%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는 안경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안과 취업, 타 직종 취업, 안경관련업체, 광학기기업체 취업, 콘택트 렌즈 업체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창업예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예정시기는 안경원에 6년 이상 근무한 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창업형태로는 단독 창업의 형태, 창업규모는 중형규모(30평형)를 예정하고 있는 빈도가 높았다. 창업지역은 수도권, 경기지역을, 창업 장소는 역세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생들의 창업예정도인 만큼 졸업 후 실제 창업률, 창업의 요건들이 모두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의식의 경향은 제시 되었다고 판단되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대학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창업에 관한, 또는 타 진로에 관한 의식과 요구도를 반영한 창업교육 및 진로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 론

본 연구는 경기지역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3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창업 요구도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안경원 창업 예정여부에 관해서는 창업하겠다는 답변이 80.1%, 창업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19.9%로 창업예정도가 매우 높았다.

안경원 창업 예정시기에 관해서는 안경원 6년 이상 근무 후 창업하겠다는 답변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연령( $p<.001$ )과 안경사 친인척 유무( $p<.05$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안경원 창업형태에 관해서는 단독창업하겠다는 답변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1$ ).

안경원 창업규모에 관해서는 30평형대 중형규모로 창업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경원 창업지역에 관해서는 수도권, 경기지역에 창업하겠다는 답변이 54.4%, 서울지역에 창업하겠다는 답변이 4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경원 창업장소에 관해서는 역세권에 창업하겠다는 답변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경원을 창업하지 않겠다는 비창업 사유에 관해서는 안과, 안경관련업체 등의 취업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7%, 창업비용의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30.4%로 나타났다.

안경원 비창업 예정자의 진로를 묻는 설문에는 안경원에 취업하겠다는 답변이 35.7%로 높게 나타났으나 안경사와 관련이 없는 타 직종에 취업하겠다는 답변이 21.4%나 되었다.

##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학생건강검사표본 분석발표-2007년9월20일 보도자료”, [http://www.mest.go.kr/ms\\_kor/news/notice/broadcast/\\_iceFiles/afildfile/2008/05/20/200710010239374917.hwp](http://www.mest.go.kr/ms_kor/news/notice/broadcast/_iceFiles/afildfile/2008/05/20/200710010239374917.hwp)(2006).
2. 김혜동,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의식조사”, 한국안광학회지, 13(3):13-17(2008).
3. 이영일, 신동성, 김정희, 김상기, “경기도 주거지역의 소규모 안경원 창업에 관한 연구”, 한국안광학회지, 13(1):1-4(2008).
4. 류경호, 김정희, “2년제 대학 안경광학과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분석”, 한국안광학회지, 12(3):65-70(2007).
5. 김대년, 김기홍, “안경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안광학회지, 9(1):43-51(2004).
6. 통계청, “200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III. 여성과 사회생활/2. 취업/2-36. 성별 면허등록 의무기록사, 안경사비율(온라인간행물)”, <http://kosis.nso.go.kr/Magazine/NEW/KL/KL030236.xls>(2008).
7. 김민혁, 박수봉, 김진숙, 이채호, 이상덕, “안경원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대한시과학회지, 6(1):113-121(2004).

## A Plan for Startup of Optical Shop by Ophthalmic Optics Students

Ok-Jin Lee, Se-Hoon Jung\* and Jin-Ah Shin\*\*

Department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 Dongnam Health College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Shinheung College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Received October 31, 2008: Revised November 15, 2008: Accepted December 9, 2008)

**Purpose:** To investigate optical shop startup awareness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as a basic source for startup education. **Methods:** Total of 287 students from three ophthalmic optics college in kyung-gi region was surveyed and analyzed using SPSS analysis. **Results:** Optical shop startup business pla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was very high (80.1%). For startup timing, over 6yrs of employe (37.0%) was most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 $p<.001$ ) and optician family present ( $p<.05$ ). For startup type, single startup type (37%) was most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 $p<.01$ ). For startup unit of space, 30 pyong (43.5%) was most, Seoul metropolitan area and kyung-gi region (54.4%) was most for startup region, and station area (40.8%) was most for startup location. The reason of non-startup was eye hospital and glass related company employe (35.7%) was most and optical shop employe (35.7%) was most for non-startup planner's way. **Conclusions:** Startup business plan was very high and need to have startup education for there startup provision.

**Key words:** Ophthalmic optics students, Optical shop, Startup business plan, Startup timing, Startup type